

# 삼화 행복의 마을



## 삼화로 담다

삼화가 당신에게 묻습니다.  
자연의 포근함이 묻어나는 집에 앉아  
가족과의 행복을 담은 나의 모습을,  
인생의 벗과 함께 즐거움을 담은  
우리들의 모습을, 그리고 추억 속  
이야기를 담아 모두에게 전하는  
그들의 모습처럼... 당신에게 묻습니다.  
지금 이 순간 무엇을 담고 싶나요?

# Contents

2014 November • December Vol.14

## S Theme

- 002 S Theme part 1**  
페인트에 가족의 마음을 담은 그들은 이유 있는  
넘버원이다 - 삼화페인트 건축용 도로팀
- 004 S Theme part 2**  
자연을 담아 프리미엄 페인트 시대를 열다  
- 더 클래시 아토프리(The Classy ATO Free)



- 006 S Theme part 3**  
집, 준비된 우연이 만든 필연적 이야기를 담다
- 008 S Theme part 4**  
술 한 잔 인생 한 입, 직장인들의 희로애락을 담다  
테마 보고서 - 통계로 본 직장인 회식 문화



## 삼화로 담다

삼화가 당신에게 묻습니다.  
자연의 포근함이 물어나는 집에 앉아  
가족과의 행복을 담은 나의 모습을,  
인생의 빛과 함께 즐거움을 담은 우리들의 모습을, 그리고  
추억 속 이야기를 담아 모두에게 전하는 그들의 모습처럼...  
당신에게 묻습니다. 지금 이 순간 무엇을 담고 싶나요?



## S Focus

- 010 삼화를 만드는 사람들**  
나의 길벗, 삼화페인트와 아름다운 동행  
- 삼성페인트 조한진 대표
- 012 삼화의 숨은 일꾼을 소개합니다**  
함성수지, 그것은 끝없는 우주로 향한 로켓과 같다  
- 유기합성개발팀 김창경 팀장
- 014 가족, 사진 그리고 이야기**  
존재만으로 든든한 사람들이 바로 내 가족입니다  
- 마켓개발팀 이강수 과장 가족
- 016 삼화인 취미 백서**  
자연에 동화(同化)되어 희열(喜悅)을 누다  
- 마켓운영팀 함지영 대리
- 018 컬러매거진**  
컬러디자인센터에서 제안하는  
2015-16 CMF Color Trend  
< HONESTY STILL >

- 020 페인트레시피**  
삼화페인트 드림페인팅 캠페인, 포인트 컬러가  
살아 있는 모던 하우스로 꿈 같은 변신 완료
- 021 페인트포커스**
- 022 뉴스포커스**
- 024 삼화페인팅스토리**  
삼화페인팅스토리 9호점 오픈
- 025 삼화를 만나다**  
삼화는 하나대! 삼화페인트 노동조합 체육대회
- 026 삼화나눔이야기**  
삼삼한 화가들의 첫번째 행복,  
청소년 비행 예방 벽화로 당현전을 물들이다!
- 027 삼화페인트 캠페인**  
컬러마스터가 되기 위한 첫걸음  
- 캐주얼 프라이데이!

## S Life

- 028 컬러로 지도를 밟다**  
청정한 호수와 하늘의 완벽한 데칼코마니  
- 충청북도 제천시
- 030 카툰인마켓**  
국경 없는 삼화페인트 이야기 <비정상회담편>
- 031 Theme로 말해요!**  
나의 기분이 담긴 바로 '그 영화'
- 032 문화를 드립니다!**  
독자 이야기가 담긴 빨간 우체통  
Samhwa & Quiz



삼화페인트 건축도료팀  
페인트에 가족의 마음을  
담은 그들은 이유 있는  
넘버원이다



결만큼 속도 중요해진 시대다. 집을 단순히 생활하는 곳이 아닌 살고 있는 사람의 멋을 담은 하나의 표현 공간으로 생각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소비자 인식 변화와 함께 외장재는 물론 내장재, 인테리어, DIY 시장의 수요가 커지면서 건축용 도료의 시장 또한 달라졌다. 삼화페인트 건축도료팀은 변화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고 그 물결을 타며 자유롭게 시장을 누비고 있다.

**업계 1위의 시작**

1946년 삼화페인트가 첫 발을 내딛는 순간 건축도료팀의 역사도 시작되었다. 건축도료팀은 제일 먼저 시장을 선점하고, 우수한 품질을 바탕으로 소위 말하는 '이름 있는' 제품을 선보이며 소비자들에게 어필해 나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7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건축용 도료분야에서만큼은 부동의 1위를 지키며 '건축용 도료=삼화페인트'라는 공식을 굳혔다. "선진 기술 트렌드 조사를 통해 국내외 환경 규제 및 신규 도료를 선제적으로 개발하면서 건축용 도료 업계의 기술적 흐름을 주도할 수 있었습니다."

건축도료 시장 업계 1위라는 타이틀은 건축도료팀의 자부심이자 자존심이다. 이를 그 누구에게도 내어 주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누구나 인정할 수 밖에 없는 품질 때문이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술적인 면에선 지금까지 내려 온 노하우를 물려 받은 것이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봐요.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고객의 소리를 듣고 내재된 불만을 즉시 연구 개발에 반영하여 개선하고자 하는 우리 연구원들의 도전과 열정, 책임 의식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고객들이 저희 제품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되어 지금의 연구 자산이 되었습니다."

**소비자는 나의 가족**

건축도료팀은 B2B 제품군 보다는 B2C 제품군이 많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연구 개발하는 과정에서 '나와 내 가족이 직접 사용한다'라는 생각으로 연구에 임한다. 그만큼 인체에 유해한 유기화합물 및 중금속을 사용하지 않은 친환경제품이면서도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는 데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방향으로 탄생한 제품이 바로 건축용 수성도료의 대표 주자 '뉴월드 수성'이다.

뉴월드 수성은 '현재 수요가 가장 많은 내부용 수성페인트를 경제적이면서도 우수한 품질로 개발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서부터 출발했다. 이중 페인트 특유의 독한 냄새는 페인트를 꺼리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였다.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폼 약품 냄새보다 덜하다고 하지만 페인트에는 관대한 시선으로 봐주지 않았다. 건축도료팀은 국내에서 시도되지 않은 선진국형 비닐-아크릴에멀전을 사용해 페인트 특유의 냄새를 확연히 줄였다. 덕분에 환경적인 부분에 민감한 소비자들의 반응은 가히 폭발적이었다. 친환경적인 면을 강화하면서 도료의 발림성과 은폐력에 대한 우려도 있었지만 변함없는 품질을 자랑하며 현장 도장 작업자들에게도 호평을 받았다.

"뉴월드 수성이 나오기 까지 1년여의 개발 시험과 출시 전 6개월 간 각 영업소에 블라인드 테스트를 거쳤어요. 시장에서 원래 반응이 좋았던 제품을 더욱 우수하게 바꾸고자 했기 때문에 신경도 많이 썼죠. 마케팅팀, 생산팀, QA팀의 도움도 많이 받았고 그 결과 선진국형 친환경 기술을 도입한 경제형 내부용 수성도료가 나왔습니다."

건축도료 사업은 건설산업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요즘 같은 경기불황은 건설경기과 직결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저마다 건축도료 사업의 성장세가 감소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와 달리 건축물의 미관과 수명연장을 위한 재도장, 재건축 등의 물량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주변의 우려와는 달리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건축도료 추세에 맞춰 도료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삼화페인트만의 친환경 제품을 필두로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비용절감형 장수 주택용 페인트도 개발하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후발업체와의 격차를 더욱 벌려 절대 넘어설 수 없는 건축도료의 막강한 1인자가 되는 게 목표입니다."

최고가 되는 것 보다 최고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언제나 더 힘들다. 치고 올라오려는 2인자를 따돌리고 1위 타이틀에 걸맞은 기술과 제품을 선보여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건축도료팀은 잘 지켜왔다. '내 가족이 사용한다'는 생각이 되내이며 세상 모든 건축물에 삼화페인트 제품으로 가득 담기 위해 오늘도 건축도료팀은 정진한다. S



# S Theme

part 2  
글 박철희(마케팅기획팀 대리)

## 더 클래식 아토프리(The Classy ATO Free) 자연을 담은 프리미엄 페인트 시대를 열다



사람들은 생각한다. 나와 우리가족이 생활하고, 머무는 공간은 다른 곳 보다 조금 더 특별해야 한다고. 삼화페인트는 이러한 고객들의 니즈를, 감성컬러에 건강을 담은 프리미엄 페인트로 탄생시켰다. 실내 공간을 세련된 감각으로 되살리고 아이들을 특별히 생각하는 부모들의 마음을 담은 친환경 프리미엄 페인트 '더 클래식 아토프리'가 바로 그것이다. 업계 최초로 아토프리 알러지케어 인증을 획득한 친환경 프리미엄 페인트 '더 클래식 아토프리'만의 반전매력을 지금 만나보자.

### 더 클래식 아토프리의 다양한 용도

- 
**인테리어**  
 습기가 많은 내부에도 탁월한 항균력을 가진 하이테크 내부용 도료  
 - 실내 벽면 전용
- 
**멀티**  
 방문, 가구 등의 리폼에 적합한 다목적 리폼용 도료  
 - 가구 방문 전용
- 
**월페이퍼**  
 다양한 색상, 은은한 여그 쉐 광택의 프리미엄 벽지용 도료  
 - 벽지 전용
- 
**하이크로마**  
 채도 높은 강렬한 색상의 인테리어용 도료  
 - 고채도 인테리어용

\* '더 클래식 아토프리'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전용 홈페이지([www.theclassypaint.com](http://www.theclassypaint.com))에 방문하셔서 확인하십시오. 감사합니다.

### 친환경 프리미엄, High-Technology 페인트

더 클래식 아토프리는 국내 건축용 도료 1위 기업인 삼화페인트와 세계적 화학기업 듀폰의 Teflon 표면보호제 기술의 CO-BRANDING으로 탄생한 제품이며, 듀폰의 불소계 특수 첨가제 사용으로 오염발생 극소화 등의 우수한 품질을 자랑하고 있다. 이러한 더 클래식 아토프리만의 기술은 먼지나 곰팡이, 낙서방지를 위한 곳이나 항상 청결을 유지해야 하는 학교, 병원시설 등의 장소에서 탁월한 기능을 발휘한다.

### 국내 도료업계 최초! 아토프리 알러지케어 인증 획득! Bio-Technology 페인트

실내 생활이 많은 우리 아이들은 인체에 유해한 인테리어재로 인해 면역력이 떨어지는 등의 건강상의 피해를 보고 있다. 이중 아토프리는 그 문제가 심각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며 언론에 이슈화되었다. 삼화페인트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내 공간 속에 노출되는 각각의 유해 성분들의 환경적 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는 미국천식알러지협회, 한국천식알러지협회의 엄격한 임상실험과 아토프리알러지 유해물질 규격 시험에서 국내 도료업계 최초로 통과하며 친환경 도료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을 인정받았다.

### 뛰어난 항균력과 깨끗한 품질보증

더 클래식 아토프리는 유·무기계 항균제 사용으로 습기가 많은 내부에도 탁월한 항균력을 발휘하여, 곰팡이 방지효과가 우수하다. 이와 함께 이지 크리닝(EASY CLEANING) 효과로 먼지나 낙서 등으로 인한 오염발생 시 오염을 제거하는 기능에 있어서는 타의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탁월하다. 이러한 기능은 여러 인증과 각 시험 규격을 보증하는 QUALITY ASSURANCE 시스템으로 품질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해준다. S



## 집, 준비된 우연이 만든 필연적 이야기를 담다

집은 책과 같다. 가족 간의 행복 이야기나 수줍게 사랑을 나누는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속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그 기막힘은 배가된다. 때로는 우정의 징표로, 공포의 대상으로 집은 장르의 벽을 넘나들며 순간순간의 모습을 담아 다양한 이야기를 전한다. 준비된 우연이 만든 우리의 삶의 작은 전을, '집 이야기'. 그 속에 숨은 의미를 함께 가슴에 담아 보자.

### House story ① DREAM

## 꿈을 현실로 바꾼 백조의 성, 노이슈반슈타인 성

디즈니의 상징인 '백조의 성'의 모티브인 독일의 노이슈반슈타인 성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으로 불리며 해마다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명소이다. 하지만 이 성이 가진 또 다른 매력은 드라마틱한 탄생 이야기에 있다. 1869년 바이에른 왕국으로 들어가는 관문을 짓는다는 목적으로 세워졌으나 이곳의 아름다운 경치에 매료된 바이에른 왕 루트비히2세가 그 용도를 성으로 변경하면서 그 탄생은 시작된다. 루트비히2세는 왕이 아닌 예술가의 삶을 살고 싶어 했다. 하지만 성왕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18세에 원치 않는 왕의 자리에 올랐고 그것은 그에게 무거운 짐이었다. 심리적으로 불안정했던 루트비히2세는 예술이나 신화에 의지하게 됐고, 강인한 게르만족 신을 다룬 바그너 풍의 풍상에 점점 빠져들었다. 노이슈반슈타인 성은 그의 동상이 나온 산물인 것이다. 여생의 대부분과 전 재산을 쏟아 부은 성의 웅장함은 실로 대단했다. 단순히 중세의 성을 충실히 재건한 것이 아니라, 로마네스크, 비잔틴, 고딕 양식이 한데 어우러져 생동감이 넘쳐난다. 1886년 루트비히2세가 의문의 죽음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공사가 중단되어 성의 내부는 아직도 미완성으로 남아있다. 하지만 그의 애환을 보여주듯 노이슈반슈타인 성은 그 아름다움과 성에 얽힌 드라마틱한 이야기로 전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 House story ② FRIENDSHIP

## 가우디와 구엘의 우정이 담긴 꿈의 공간, 구엘저택

"바르셀로나에 와서 이 도시가 낳은 가장 위대한 인물 중 하나인 건축가 안토니 가우디에게 경의를 표하지 않는다면 바르셀로나를 방문했다고 말할 수 없다." 스페인의 자랑이자 세계적인 건축가 안토니 가우디는 그의 혼이 담긴 9개의 대표작을 바르셀로나에 남겼다. 이중 그의 건축인생의 전환점을 만들어준 작품이 있으니 친구이자 이상적인 후원자 에우세비오 구엘을 위해서 만든 '구엘저택'이다. 구엘저택은 가우디만의 개성이 묻어나는 고딕에 무어리시 스타일\*을 가미한 디자인으로 건축되었는데, 이는 그때까지 없던 새로운 스타일의 창조였다. 저택의 공간 구성은 매우 자유스러우면서도 기능적이고, 궁전과 같다. 특히 옥상에 설치된 18개의 독특한 가우디 모양의 대리석 기둥은 저녁이 되면 조명을 받아 각양각색의 아름다운 자태를 뽐낸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궁전의 아름다움과 독창적인 것을 동시에 표현하는 구엘저택을 가우디 최고의 역작으로 손꼽는다. 하지만 이는 그를 믿고 끊임없이 후원해준 구엘이 없었다면 이루기 힘들었을 것이다. 성공한 사업가 구엘과 건축가 가우디는 후원자와 예술가의 관계를 넘어 신뢰와 믿음으로 맺어진 40년지기 친구와 같았다. 이러한 둘의 각별한 우정은 구엘저택이라는 위대한 건축물로 그 열매를 맺었다. 아마도 구엘이 자신의 동무이자 예술적 오마주인 가우디의 혼이 담긴 예술성을 존중하였기에 이런 위대한 작품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 무어리시 스타일 = 스페인 모로코 튀니지 지역의 이슬람교 문화권의 문양

### House story ③ CURSE

## 어느 멋진 지중해 휴양지의 저주, 가이올라섬 별장

지중해의 에메랄드 빛 바다를 등지고 아름다운 석양 아래 그 우아한 자태를 뽐내는 두 개의 섬. 이탈리아 남부 나폴리 해안에 자리잡고 있는 가이올라섬은 두 개의 섬이 아치형 돌다리로 연결되어 있어 '돌다리 섬'이라고도 불린다.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가이올라섬이지만 그 이면에는 무시무시한 저주가 숨어있다. 저주의 시작은 192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스위스의 부호 한스 브라운은 섬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섬을 구입했고 그 곳에 별장을 지으려 했다. 하지만 당시 가이올라섬에는 수도원이 자리를 잡고 있었고 수도사들은 이 땅에 수도원 외에 다른 것을 지으면 신의 저주가 내릴 것이라며 별장 건설을 반대했다. 한스 브라운은 수도사들의 말을 무시하고 별장을 지어 그곳에서 살았지만 저주 때문일까, 계속된 악몽으로 괴로워하다 급기야 별장 앞에 떨어진 번개를 맞고 사망한다. 이후 가이올라섬의 새로운 소유자가 된 오토 그란백 역시 섬에 호텔을 지으려 했으나 그 또한 1년 뒤 심장마비로 사망하고 만다. 이후에도 수 많은 가이올라섬 소유자들이 사고를 당하거나 죽음을 맞았다. 그리고 최근인 2009년 가이올라섬 소유주였던 프랑코와 그의 아내가 섬 별장에서 괴한에게 살해당하면서 가이올라섬의 저주는 다시 한 번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었다. 지중해의 아름다운 섬 가이올라, 그리고 그 곳에 자리잡고 있는 하나의 별장. 그곳의 저주는 이 둘의 잘못된 만남에서 시작됐을지 모른다. 하지만 사람들은 저주를 넘어 어느 멋진 지중해 휴양지의 모습을 갖춘 이 둘을 만나기 위해 오늘도 이곳을 찾는다. S



# S Theme

part 4  
글 코비즈

테마보고서 | 통계로 본 직장인의 일상

## 술 한 잔 인생 한 입, 직장인들의 희로애락을 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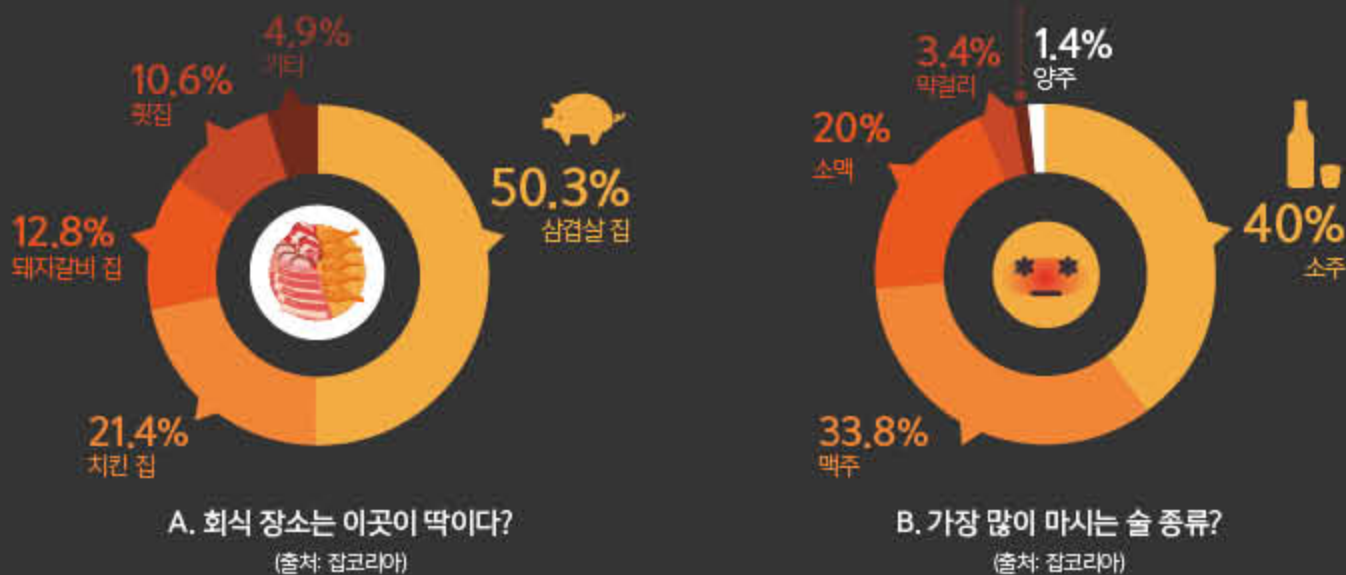
어느덧 우리 직장인들은 2014년의 끝자락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그리고 이때쯤이면 저마다 한 해의 마무리를 핑계로 술자리 역시 잦아들기 마련이다. 하지만 직장인 모두의 생각이 그러하듯 직장 내 술자리인 회식은 버거운 직장생활의 연장선. 직장인들은 회식이라는 두 글자를 듣기만해도 벌써부터 피로가 눈 밑에서 무릎까지 내려 온다. 그렇다고 회식자리가 언제나 불편한 공간인 것만은 아니다. 사내 직원들이 서로에 대해 알아가며 친목을 도모하는 자리라는 이면을 가지고 있다. 한번 빠지면 빠져나가기 힘든 눈과 같은 직장인 회식문화. 직장인들의 희로애락이 담긴 직장인 회식 문화 속을 함께 들여다보자.



회식 날 오후  
오늘은 공포의 회식 날!  
하지만 난 행복한 회식의 모습을 꿈꾼다?



회식 장소로 이동  
업무 종료! 드디어 결전의 장소로 떠난다?



회식 시작  
드디어 즐겁고도 살벌한 회식 대전이 시작됐다?



회식을 마치고  
내일을 걱정하며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고고씽?



삼화를 만드는 사람들  
취재 코비즈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다. 인생의 길을 함께 걸으며 희로애락을 나누는 길벗이라면 그 의미는 배가 될 것이다. 이번<삼화를 만드는 사람들>에서 만난 삼성페인트 조한진 대표는 삼화페인트와의 만남을 '길벗과의 만남'이라 말했다. 세상을 오색빛깔로 물들인 가을의 끝자락, 길벗과의 만남이라는 참 의미를 듣기 위해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에 위치한 삼성페인트를 찾았다.

나의 길벗, 삼화페인트와 아름다운 동행  
삼성페인트 조한진 대표

길벗을 만나다

오늘 찾은 삼성페인트는 30여 년 동안 면목동 지역에서만 페인트대리점을 운영한 면목동의 터줏대감으로 지역 내에서 평판이 좋기로 유명하다. 조한진 대표는 오늘과 같이 지역 내에서 두터운 신망을 쌓으며 대리점을 운영할 수 있는 비결을 삼화페인트와의 만남 때문이라고 말한다. 40여 년 전 지인의 소개로 페인트 대리점에 취업하며 페인트와 인연을 맺은 조한진 대표는 그곳에서 쌓은 페인트 지식을 바탕으로 80년대 작은 페인트 소매점을 창업했다. "처음에는 서울지역에서 인지도가 높은 삼화페인트 대리점으로 창업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삼화페인트는 대리점과 관련해 지역별 안배원칙을 철저히 지키죠. 이 때문에 대리점 T.O를 받기가 어려워 타 브랜드로 소매점을 시작했어요." 조한진 대표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특유의 성실함으로 페인트 소매점을 잘 꾸려 나갔지만, 마



음 한구석에는 삼화페인트에 대한 애정이 남아 있었다. 그러던 중 지인이 건강상의 문제로 삼화페인트 대리점을 조한진 대표에게 인계하면서 꿈에도 그리던 삼화페인트와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된다. 삼화페인트와의 만남으로 삼성페인트는 승승장구하며 지금의 면목동 터줏대감으로 자리매김했다. "삼화페인트는 지금의 저를 있게 해준 길벗이에요. 이런 길벗과 함께 페인트의 길을 걸었기에 대리점은 더욱 번창할 수 있었어요. 오늘날까지 이곳에서 대리점을 운영할 수 있는 것도 삼화페인트 덕분이니 고마울 수밖에요"

길벗과 함께 시련을 넘다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온 삼성페인트의 조한진 대표지만 그에게 시련이 없던 것은 아니다. 1997년 12월, 대한민국을 강타한 IMF 경제위기는 조한진 대표가 페인트업계에 발을 들여 놓은 후 찾아온 최대 위기였다. "기업들이 줄줄이 부도가 나면서 돈을 못 받아 도산하는 페인트 대리점들이 파다했어요. 아마 이전까지 경기가 좋아서 편하게 장사하다 보니 갑작스러운 경제위기에 대처하는 방법을 찾지 못해서 더욱 그랬던 거 같아요" 하지만 '어려울 때일수록 기회는 찾아온다'는 말이 있다. 조한진 대표는 이러한 어려운 시기를 긍정적인 마인드로 대처해 나갔다. 안 좋은 경기 속에서도 긍정적인 생각으로 주변을 살피며 시기적 흐름을 읽으려고 노력한 것이다. 그 결과 어려운 경기 속에서도 건설업계에서는 꾸준히 일감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건설업체나 공사장을 중심으로 영업하며 어려운 시기를 넘길 수 있었다. 특히 건설용 도료로 평판이 좋은 삼화페인트는 조한진 대표가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게 해준 최고의 선물이었다. 조한진 대표의 긍정적 마인드는 운영철학으로 발전하여 현재 삼성페인트의 곳곳에 남아 있다. "저의 운영철학은 긍정을 뜻하는 올바른 마음가짐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언제나 올바른 마음가짐 속에 고객을 생각하는 진심이 담겨있기 때문이죠. 이것을 바탕으로 한 고객만족실현이 저의 운영철학의 최종 목적입니다"

길벗과 아름다운 동행

오랜 시간 삼화페인트와 한 길을 걸어오며 들은 정 때문일까. 조한진 대표의 삼화페인트에 대한 애정은 남달랐다. 특히 삼화페인트의 브랜드 파워와 제품에 대해서는 칭찬을 넘어 무한 신뢰를 보였다. "삼화페인트의 서울지역 입지는 확고합니다. 품질도 최고 수준이고요. 요즘 들어 타사 제품들이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삼화페인트의 제품에 비교하면 아직도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건설업자건 페인트가 필요한 사람이건 꼭 삼화페인트를 찾습니다. 상황이 이런데 제가 어떻게 삼화페인트를 좋아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조한진 대표에게 삼화페인트는 삶의 길을 함께 걷는 길벗과 같은 존재다. 그만큼 인생을 함께해온 페인트 삶의 전환점이 되었기에 삼화페인트의 존재는 남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언제나 긍정적인 마인드로 고객에 대한 배려와 관심으로 삼화페인트를 이끌어가는 삼성페인트. 이 둘의 아름다운 동행이 계속되기를 기원한다. S

삼화의 숨은 일꾼을 소개합니다  
취재 코비즈



## 합성수지, 그것은 끝없는 우주를 향한 로켓과 같다

### 유기합성개발팀 김창경 팀장

지금과 달리 선 입사, 후 부서지원으로 직원 채용이 이루어지던 그때 그 시절, 갓 입사한 김창경 팀장은 연구소 견학을 다니며 어느 부서에 뼈를 묻을지 둘러보던 중 '이거대!' 싶었던 것이 수지였다. 고분자학을 전공한 것도 있지만 도료와 수지 사이에 이루어지는 불가분의 관계 때문이었다. 무엇이든 가장 기본이 핵심이라고, 수지 없이는 도료가 될 수 없다는 도료의 특성은 김창경 팀장의 발길을 잡아 끌고 연구소 토박이로 만들기에 충분했다.

### 연구원은 연구원이다

말 그대로 연구소에서 살며 '숨은' 일꾼으로 지냈던 김창경 팀장은 연구소 밖을 누비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연구소 안에서 연구개발에만 집중하다 보니 시장 돌아가는 상황을 피부로 느끼기 어려웠다. "고객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이 때문에 개발 중 한계에 부딪히면 개발 포커스가 엇나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고객을 만나보기로 했어요. 어차피 우리가 제품을 개발해서 고객에게 평가를 받고 매출을 올리는 거니까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한 거죠" 고객 미팅을 하고 새로운 연구 아이템을 발굴하는 데에 할애되는 부분이 많지만 어쨌거나 김창경 팀장은 뱃속까지 연구원이었다.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여 개발한 제품이 순조롭게 출시돼 안정적으로 납품이 되는 것에 보람을 느끼는 것은 당연지사고, 연구 중 난관에 막혔을 때 그것을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더 큰 희열을 느낀다. "포물레이팅을 할 때 이론을 통해 포커스를 잡고 가능성에 대한 타진을 한 후 실험을 해요. 이제 다 왔구나 싶어 제품화를 하자 했는데 최종적으로 물성에 문제가 생기면 정말 막막해요. 시간은 급하고 영업쪽에선 고객과의 약속이 있으니 계속 상황을 물어오고, 그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원점에서 시작해요. 다시 처음부터 하나씩 풀어가다 보면 놓쳤던 부분을 발견하게 돼요. 그땐 단순히 '즐겁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박찬 무언가가 가슴 속에 확 와요. 아마 이런 연구원들이라면 다 알 거예요"

### 함께 해서 고마운 사람들

제품 개발에 들어가면 경우에 따라서는 몇 달 동안 야근과 철야를 하는 일도 많다. 그러다 보면 가족 보다 더 가족 같은 사람이 동료 연구원들이다. 김창경 팀장에게 동료 연구원들은 어떤 존재냐 물으니 "아내에게 미안하지만 동반자예요"라고 답한다. 연구원들이라 기술적인 대화를 많이 나누게 되는데, 그러다 의견이 안 맞으면 네 지식이 맞냐, 내 지식이 맞냐 난상토론을 벌인다. 그땐 고참, 풀병이 없다. "근데 전 이 시간들이 좋더라고요. 제가 배우는 것도 있고, 제가 알려줄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러면서 서로 동질감도 느껴요" 그만큼 김창경 팀장은 후배 연구원들에게 무한 애정을 가지고 있다. 사람마다 저마다의 능력이 다른지라 성과도 어쩔 수 없는 법이다. 좋은 성과로 성취감을 얻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는 사람도 분명 존재한다. 김창경 팀장은 팀원 누구 하나 이러한 기분을 갖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 "사람이 언제나 성공만 할 순 없지만 연속적인 실패도 사람을 움츠러들게 해요. 기본적으로 팀원들에게 개발해 보고 싶은 아이템이 있는지 물어요. 하고 싶은 연구만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배분을 해야 할 때는 그 사람이 잘 할 수 있는 것으로 최대한 유도하려 해요. 물론 그렇게 하다 보면 난이도가 구분되기도 하지만 처음에는 가벼운 것부터 하다 점점 발전하는 후배들을 보면 제가 다 뿌듯해요. 팀장이라는 자리에 앉아있다 보니 거기서 오는 행복감도 정말 커요"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하기 위해 연구소 밖 고객과의 만남도 즐겁고, 알아서 척척 해내는 팀원들이 있어 행복하다. 25년 이상을 합성수지 연구에 보냈다. 그렇지만 합성수지는 그에게 아직도 끝없는 우주를 향한 로켓과 같다고 한다. 그만큼 무궁무진하다는 말이다. 이제는 그 끝없는 세계를 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탐험하는 게 그의 소원이다. 한 분야만으로 오랜 시간을 보내 질릴 법도 하지만 여전히 궁금하고 여전히 즐겁다는 그는 진짜 연구원이다. **S**



“ 근데 전 이 시간들이 좋더라고요. 제가 배우는 것도 있고, 제가 알려줄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러면서 서로 동질감도 느껴요 ”



#### Notice

다음 호에서는 김창경 팀장이 추천한 삼화퍼인트의 숨은 일꾼 전자재료팀 이육형 주임연구원을 만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대 바랍니다.



가족, 사진 그리고 이야기  
 취재 코비즈  
 사진 배봉희  
 장소 르 스튜디오  
 메이크업 단미메이크업



## 존재만으로 든든한 사람들이 바로 내 가족입니다

이강수 과장(마켓개발팀) 가족

가족사진을 찍어야 하겠다고 늘 생각은 하지만 시간 맞추기 어렵다는 핑계로 차일피일 미루게 되었다는 마켓개발팀의 이강수 과장. 그러던 중 삼화엔피플에서 진행하는 가족사진 촬영에 당첨되어 드디어 기회가 생겼다. 어머니, 큰누나, 작은누나 부부, 이강수 과장 부부 그리고 4명의 조카들까지 10명의 대식구가 모인 그 곳엔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

어머니 김순목씨를 중심으로 가족들이 자리를 잡았다. 4명의 손주를 둔 할머니이지만 전혀 할머니 같지 않은, 젊음이 못지 않은 패션 센스를 지닌 김순목씨는 이강수 과장이 세상에 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다. "저희 삼남매를 부족함 없이 잘 키워주시고, 홀로 우리 남매를 시집, 장가 다 보내셨어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다짐한 게 어머니 뜻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말자예요. 너무 힘들게 저희를 키우셨기 때문에 남은 삶은 마음고생 없이 편안하게 모시고 싶어요. 근데 그게 마음처럼 쉽지가 않네요" 김순목씨에 대한 애뜻함을 표현하자 오히려 김순목씨는 그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효도라며 웃으신다. 이강수 과장에게는 김순목씨만큼이나 소중한 사람이 바로 아내 왕희정씨다. 작년 5월에 백년 가약을 맺고 지금까지 단 한 번의 싸움 없이 알콩달콩 지내고 있다. 그래서 왕희정씨는 알아서 잘 해주는 이강수 과장에게 항상 고맙다고 한다. 이런 왕희정씨에게 "말은 저렇게 해도 진짜 맞춰주는 건 아내예요. 내조란 무엇인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이랄까요? 제가 태어나서 가장 잘 한 일이 아내와 결혼한 일이에요"라 응수하며 스튜디오 안을 달달한 향으로 가득 채웠다.

### 지금처럼만 계속 행복하기

지금도 어느 누구 부럽지 않을 정도로 행복한 가족이지만 이강수 과장은 아빠가 되어 10명에서 11명이 되는 더욱 행복한 미래를 그린다. "친구 같은 아빠가 되어 아이와 최대한 많은 시간을 함께 하며 많은 추억을 만들어 가고 싶어요.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 어머니가 하얗게 흰 머리를 하시고, 증손주를 안고 행복한 모습을 꿈꿔요. 그게 제가 바라는 최고의 미래입니다."

이날 이강수 과장은 사진 촬영을 진행하며 가족과 함께 하고 싶은 것 리스트 하나를 지웠다. '가족하면 애뜻함이 먼저 떠오르는 이강수 과장. 그런 그에게 가족이란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 이런 가족이 있어 이강수 과장은 오늘도 마음이 든든하다. S

### Notice

삼화엔피플이 삼화인분들께 가족사진을 선물합니다. 가족사진을 찍고 싶은 삼화인은 간단한 사연과 함께 연락처를 적어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당첨된 분들에게는 가족사진 촬영과 함께 앨범을 선물로 드립니다. 삼화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응모는 이쪽으로 ⇒ 삼화엔피플 공식 이메일주소 [speople@spi.co.kr](mailto:speople@spi.co.kr)



삼화엔피플  
를 위한 콘텐츠

## 자연에 동화(同化)되어 희열(喜悅)을 낚다

삼화페인트 마켓운영팀 함지영 대리

잘 쉬고, 잘 노는 사람이 일도 잘 한다. 일만큼이나 자기 생활도 열정적인 우리 삼화가족들! 짬이 날 때마다 무엇을 하며보낼까? 손 끝으로 전해지는 쫄깃한 손맛, 플라잉낚시를 즐긴다는 삼화가족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삼화엔피플이 만나 이야기를 나눠보았다.

### 플라잉낚시가 조금 생소하게 느껴져요. 플라잉낚시가 무엇인가요?

플라잉낚시는 계곡이나 강에 직접 들어가 미끼를 원하는 곳까지 날려 보내 물고기를 낚는 낚시의 한 종류예요. 국내에서는 아직 플라잉낚시를 하는 사람이 적어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을 거예요. 영화 <흐르는 강물처럼>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거기서 브래드 피트가 하는 낚시가 바로 플라잉낚시예요.

### 국내에서 플라잉낚시를 즐기는 사람의 수가 많지 않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접하게 되셨나요?

낚시가 취미인 남편이 플라잉낚시를 함께 해보자고 했어요. 저는 쉬는 날이면 여행을 다니려고 하는 편인데, 플라잉낚시를 하려면 산, 계곡을 찾아 가야 하기 때문에 여행도 다니고 낚시도 할 수 있다는 점이 생겨서 시작하게 됐죠. 그리고 동호회에도 들리고, 낚시 재미에 푹 빠져서 짬 짬 내서 다녀오기도 하고, 해외 여행을 가도 플라잉낚시가 가능한 곳을 찾아 하루 이틀은 투 자할 정도로 즐겁게 생활하고 있어요.



### 여행 장소도 연관해서 고려할 정도면 보통 빠져 있는 게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게 까지 될 수 있었던 플라잉낚시의 매력은 무엇인가요?

가장 큰 매력이라면 자연동화(自然同化)죠. 계절의 변화에 따라 멋진 풍경을 접할 수 있고, 물에 들어가 낚시를 하기 때문에 내가 자연의 일부가 되었다는 느낌이 들어요. 플라잉낚시는 '훅'이라고 불리는 가짜 미끼를 쓰는데 이것을 직접 만들어야 해요. 그러다보니 수상생물과 곤충을 정확히 이해해 재연해내고, 움직임도 파악하고, 성충과 유충 등 계절에 따른 변화를 파악해 물고기가 봤을 때 진짜처럼 만들어야 하죠. 자연상태의 변화를 알아야 하니 동화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바로 그 맛에 플라잉낚시를 합니다.

### 플라잉낚시 하러 자주 가는 장소가 있으신가요?

주로 정선의 동남천, 평창의 미탄천을 가요. 가까운 곳으로 잠시 다녀올까 할 때는 가평의 가평천이나 양평으로 다녀오기도 해요. 보통은 계곡으로 많이 가는 편인데요, 그 이유는 계곡에 사는 물고기들은 바늘이 두껍지 않아 몸이 부드럽고, 몸집도 크지 않아 작고 귀엽고, 또 얼굴도 아주 예쁘거든요.

### 이렇게 다니시면서 기억에 남는 일이 많을 것 같아요. 소개 좀 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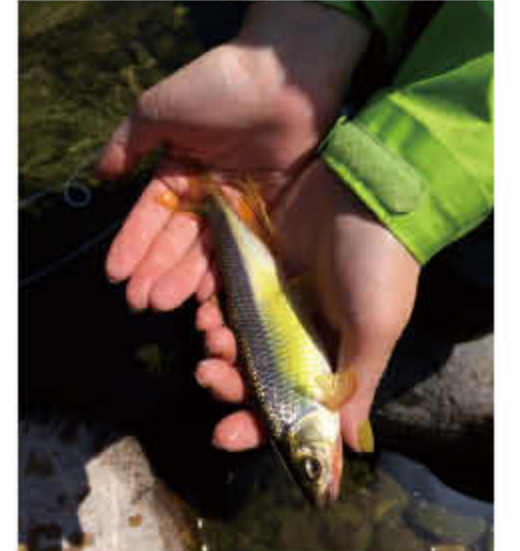
보통 큰 물고기를 잡으려고들 하는데 저는 딱히 그렇지 않아요. 그 덕에 남들이 잘 잡아 보지 못한 물고기를 잡을 때가 종종 있어요. 얼마 전 가평천에서 꺾지를 낚았는데 거의 볼 수 없는 종이라요. 그 덕에 가평천이 꺾지를 잡을 수 있는 곳이라고 입소문이 났더라고요. 큰 물고기도 좋지만 다양한 어종을 낚아 나의 리스트에 하나씩 추가하는 때가 늘 기억에 남아요.

### 플라잉낚시는 다른 낚시와는 달리 잡은 물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들었어요.

네, 그게 바로 플라잉낚시의 '캐치 앤 릴리즈' 정신! 그래서 특히 고수 중의 고수들은 물고기 몸에 상처를 안 내려고 낚시바늘의 코를 잘라내고 써요. 제 실력은 아직 그럴 정도가 되진 않지만 코를 잘라내고 해요. 그 부분에 걸려 바둥거리는 게 물고기에게 너무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덕에 10마리가 물면 7마리는 빠져나가지만 그 중에도 그 바늘을 물고 물까 지나오는 녀석들이 있어 그것에 큰 회의를 느낌니다!

### 마지막으로 삼화엔피플 독자들에게 플라잉낚시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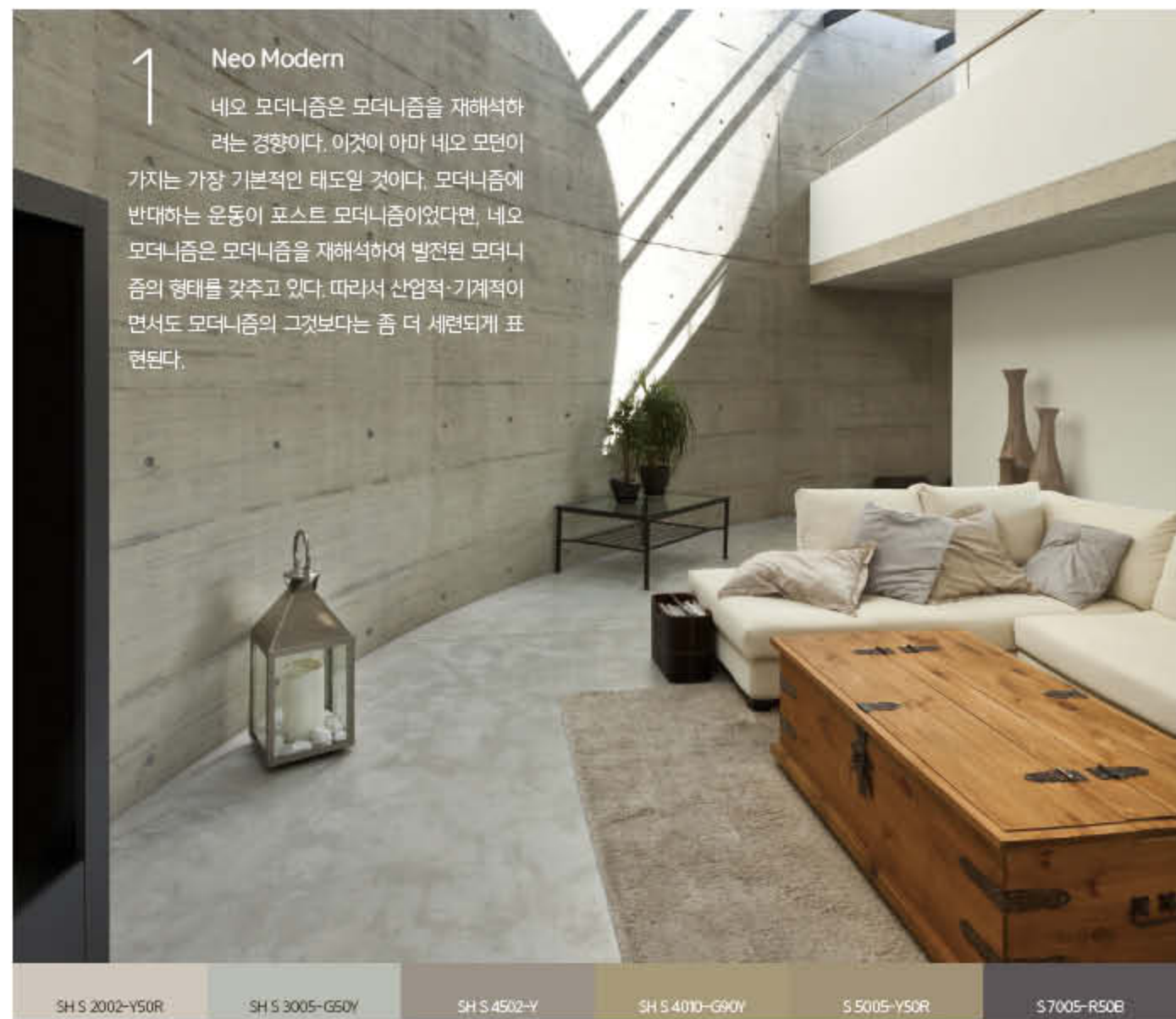
플라잉낚시가 귀족 스포츠라 불리며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것으로 생각들 하시는데요, 돈으론 살 수 없는 자연을 접하고 휴식할 수 있는 스포츠라 생각해요. 생각보다 누구나 쉽게 할 수 있고, 가족끼리 캠핑도 하며 함께 즐길 수 있는 좋은 스포츠예요. 모두에게 강력 추천합니다! S



컬러매거진  
글 이미지[질라개발팀 연구원]

컬러디자인센터에서 제안하는  
2015-16 CMF Color Trend  
HONESTY STILL

정보화시대 넘쳐나는 정보들로 인해 현실에서 탈피해 심에 대한 욕구가 커지면서 휴식에 대한 니즈가 커지고 있다. 형태는 점점 단순화되고, 불필요한 요소는 최대한 배제하는 본질 그대로의 라이프를 추구한다. HONESTY STILL에는 현 시대가 원하는 본질의 모든 것이 담겨있다. 불완전한 마감처리와 자연 소재의 느낌을 그대로 살려 자연으로의 '회귀와 휴식'이란 컨셉을 잘 반영하고 있다. 매트한 콘크리트와 모래언덕 그리고 나무의 나이트를 연상시키는 솔리드 패턴은 미니멀한 느낌과 함께 안정적이고 균형 있는 공간 연출을 창출해낸다.



1 Neo Modern

네오 모더니즘은 모더니즘을 재해석하려는 경향이다. 이것이 아마 네오 모던이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태도일 것이다. 모더니즘에 반대하는 운동이 포스트 모더니즘이었다면, 네오 모더니즘은 모더니즘을 재해석하여 발전된 모더니즘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 따라서 산업적·기계적이면서도 모더니즘의 그것보다는 좀 더 세련되게 표현된다.

SH S 2002-Y50R SH S 3005-G50Y SH S 4502-Y SH S 4010-G90Y S 5005-Y50R S 7005-R50B



2 Rawganic

로가닉이 기존의 오가닉과 다른 점은 '천연 그대로'가 가진 본연의 모습을 유지한다는 점이며, 천연이 주는 깨끗함을 본연의 상태로 유지할수록 로가닉의 가치는 커지게 된다. 로가닉은 세 가지의 핵심적인 가치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첫째는 날 것 상태인 천연 그대로의 성분을 사용하는 것이고, 둘째는 최소성이며, 셋째는 매력적이고 재미 있는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SH S 0505-Y10R SH S 3005-Y20R SH S 4010-G90Y SH S 3030-G90Y S 3040-G60Y S 5005-Y50R

3 New Zen Style

젠 스타일이란 선(禪)의 일본식 발음으로 불교의 선종인 대승불교의 한 운동으로 기원 6세기에 중국에 들어왔으나 우리나라에서는 7,8세기 무렵에 성립, 중국명은 첸(Chan)이라고 한다. 첸은 조용히 생각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젠 스타일은 90년대 유럽에서 시작하여 서양에서 본 동양사상으로 명상, 절제, 정갈함, 고요함, 자연스러움으로 표현된다. 패션, 인테리어, 헤어와 메이크업 등 스타일을 리드하는 모든 분야에서 각광받고 있으며 다시 동양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



SH S 2000-N SH S 3005-G50Y S 4005-G80Y SH S 4502-Y S 5005-B20G S 7005-R50B

4 Empty Essense

단순함은 복잡함의 핵심이며 복잡함은 단순함에서 나온다. 의미 있는 우연들이 모인 것을 동시성이라고 한다. 동시적인 사건을 자주 경험하다 보면 아이디어가 떠오른다. 와비 사비는 평범한 사물을 감상할 때 아무리 불완전하고 초라한 것일지라도 거기서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다는 일본의 미의식이다. 비움이 다양한 해석을 허용한다면, 단순성은 불필요한 정보를 제거하여 절대적인 하나의 결론만을 남겨둔다. 따라서 비움은 늘 단순하지만 단순성이 늘 비어있지는 않다 S



SH S 0500-N SH S 0505-Y10R SH S 1002-R SH S 2002-Y50R SH S 2000-N SH S 3005-G50Y

## S Focus

퍼인트레시피  
글·사진 김예슬 [소셜마케팅 대리]



### 삼화페인트 드림페인팅 캠페인, 포인트 컬러가 살아 있는 모던 하우스로 꿈 같은 변신 완료!

친환경 페인트 더클래시 아토프리로 건강하고 행복한 꿈의 공간을 선물하는 '삼화페인트 드림페인팅 캠페인'. 더클래시 아토프리 브랜드 홈페이지와 지난 6월 코엑스에서 열린 'DIY & 리폼쇼'에서 캠페인 응모를 접수 받아 2,000:1의 높은 경쟁률을 뚫고 '루시마망'님이 행운의 주인공으로 당첨됐다. 삼화페인트는 루시마망님의 집을 찾아가 통일감 없이 어수선했던 내부를 포인트 컬러가 있는 모던 하우스로 변신시켰다.



**문제점 해결!**  
어둡고 올드한 거실 분위기를 밝고 따뜻하게

Before After

집안의 분위기를 좌우하는 거실에는 밝은 화이트 계열(SH S 0502-Y50R)로 전체 공간을 페인팅한 후 차분하고 깔끔한 베이지 계열 (SH S 4005-Y80R)로 포인트 벽을 페인팅하였다.

Tip!  
페인팅한 벽면이 조금 씩씩해 보인다면 선반이나 가족들의 사진이 담긴 모던한 액자로 포인트를 주자!



**문제점 해결!**  
아이가 좋아하는 컬러로 독립된 공간 만들기

Before After

아이가 원하는 컬러로 방에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핑크색(SH S 0520-R20B, SH S 1030-R20B)으로 페인팅하여 방안을 화사하게 꾸며주었다. S

Tip!  
미국, 국내 알러지 케어 인증을 받은 무독성 친환경 페인트 더클래시 아토프리로 아이방에도 안심!

## S Focus

퍼인트포커스  
글 박철희 [마케팅기획 대리]

### 빈티지한 부식 질감 그대로의 Styling "수입 페인트 이상의 고품격 부식질감 구현, 경제성 있는 합리적 가격!"

삼화페인트는 지난 여름 신제품인, 메탈릭데코를 출시했다. 메탈릭데코는 철, 청동, 구리 등 실제 금속이 녹이 쓴 것과 같은 부식질감의 느낌을 구현할 수 있는 빈티지 인테리어 도료이다.



부식페인트를 사용한 인테리어가 프랜차이즈 커피브랜드 '카페베네'를 필두로 강남, 홍대 등 수도권 변화가 카페 및 상점 등을 위주로 확산되고 있으며, 이러한 트렌드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삼화페인트는 발 빠르게 품질 및 가격 경쟁력을 갖춘 메탈릭데코를 선보였으며, 앞으로 시장 확대가 기대된다.

메탈릭데코는 저취, 저독성을 갖춘 수용성 친환경 제품이며, 중도를 적용하고 부식액을 분사하여 부식시키는 것이 특징이다. 현재 아이언모카, 쿠퍼블루, 브론즈그린 등의 컬러가 판매되고 있다. DIY용으로 0.2L와 0.5L 등 2종 시판되고 있으며, 중도와 부식액을 세트 포장해 사용자의 편리성을 강조했다. 일반 시공용으로 나온 4L는 개별 판매된다.

중도 컬러별로 전용 부식액을 사용해야 하는데, 아이언모카는 중도 건조 후에, 쿠퍼블루와 브론즈그린은 중도 조장 후 바로 부식액을 분사해야 한다. 또한 적용 소재가 철재일 경우 전용 프라이머(메탈릭데코프라이머), 전용 상도(메탈릭데코 상도 투명)를 도장해야 한다.



아이언-모카(Iron-Mocca)



쿠퍼-블루(Copper-Blue)



브론즈-그린(Bronze-Green)



DIY용[0.2/0.5L SET PACKAGE]

일반시공용[4L]

삼화페인트는 메탈릭데코 출시와 함께 제품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영업사원들을 대상으로 서울 흥엔톤즈와 공주공장 실습실(10월 7~8일)에서 교육을 진행해 직접 실습하는 자리를 가졌다. 흥엔톤즈는 사내직원 교육뿐만 아니라 소비자 강좌도 진행하면서 제품에 대한 접근성 및 활용성을 높일 예정이다. 삼화페인트 인테리어도로 신제품 '메탈릭데코'는 고급스럽고 빈티지한 느낌으로의 연출이 기대되는 스페셜 아이템이다. S

삼화페인트

■ 삼화페인트, 제주도 최초의 건축전시회 '2014 제주경향하우징페어' 참가



삼화페인트는 지난달 17일부터 19일까지 3일 간 제주도 서귀포시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2014 제주경향하우징페어'에 참가했다. 2014 제주경향하우징페어는 제주도 최초의 건축전시회로 삼화페인트

는 이번 전시회에 독립부스를 설치하여 제품은 물론 당사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삼화페인트는 마케팅본부와 부산영업소의 긴밀한 협조와 현장관리를 통해 본 행사를 진행하였으며,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실내 인테리어 페인트, 스테인류, 프리미엄 페인트를 중심으로 홍보를 전개했으며, 이중 목재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스테인류 제품이 참관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이밖에 삼화페인트는 제주도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만루면 방식의 제품 컨설팅을 진행하여 참관객들의 높은 호응을 이끌어냈다.

금번 참가를 통해 제주도의 일반 소비자 및 업계 관계자들에게 당사의 프리미엄 제품군을 소개하는 자리 마련과 동시에 수 많은 참관객들의 내방으로 서울 및 수도권지역에 못지 않은 삼화페인트에 대한 관심과 위상을 느낄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 취재 권혁준(마켓지원팀 대리)

■ 삼화페인트, 대한민국 친환경대전/국제 공기청정 및 그린환경 전시회 참가



삼화페인트는 국제 공기청정 및 그린환경 전시회(10.14~16/코엑스)와 2014 대한민국 친환경 대전(10.21~24/코엑스)에 참가해 삼화페인트의 친환경기술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최근 웰빙과 새집 증후군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친환경 건축자재의 중요성이 점차 크게 인식되고 있는 바, 이번 전시회에 참가하게 되었다. 삼화페인트는 이번 전시회 참가를 통해서 친환경적 이미지에 부합하는 삼화페인트 브랜드와 친환경기술을 홍보하고, 친환경페인트 더 클래식, 아이생각, 워터씨리코트, 차밍 메달릭 등 친환경 제품에 대한 인지도 향상을 위한 기회의 자리가 되었다. 취재 권혁준(마켓지원팀 대리)

홈엔트즈

■ 삼화페인트 영아티스트 작품전 개최

삼화페인트는 지난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홈엔트즈에서 '삼화페인트 영아티스트 작품전'을 개최했다. 이번 전시회는 제13회 한성백제미술대상전과 함께 일반부와 학생부를 대상으로 젊고 재능 있는 신진 작가 발굴의 일환으로 삼화페인트가 후원하고, 삼화페인트에서 새



롭게 출시된 미술용 도료 '더 클래식 아트페인트'를 이용한 작품을 선보이는 작품전이다. 공모를 신청한 수백 명의 작가 중 포트폴리오를 검토하여 이중 개성 있고 창의력 높은 30명을 선발하였고, 삼화페인트가 제공하는 아트페인트로 작업한 회화 작품을 송파미술가협회에서 심사하여 입상작을 선정하였다. 입상작은 영아티스트 골드 1명(강성수<인생>), 실버 1명(유술<아빠10>), 브론즈 2명(강민유<My Arcadia>)이며, 수상자들에게 각각 작품활동 후원금과 함께 상장과 상패가 주어졌다. 삼화페인트 김중대 마케팅본부장은 "해외 수입 재료 의존도가 높은 미술계에 필요한 제품을 공급함과 동시에 젊은 작가 양성에도 일조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며, 앞으로 더욱 다양한 미술대전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취재 코비즈

## S Focus

삼화페인트스토어  
글 코비즈

### 삼화페인트스토어 9호점 오픈

인천광역시 서구 공촌동에 위치한 삼화페인트스토어 9호점 인천 월드상사점이 오픈했다. 월드상사점은 리뉴얼을 통해 삼화페인트스토어로 거듭난 대리점들과 달리 신규 매장으로 오픈된 매장으로 더욱 의미가 깊다.



월드상사 김기득 대표는 대리점 운영을 결정 후 기존의 삼화페인트스토어를 보면서 신선함을 느꼈다.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페인트 대리점의 어두운 분위기와 페인트가 높게 쌓여있어 답답한 인테리어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마음 한 켠에는 리뉴얼 한 대리점처럼 기존 거래처가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신규 매장이 고객들에게 얼마나 인지될 수 있느냐 하는 걱정이 앞서기도 했다.

그러나 막상 꾸경을 열어보니 하나 둘씩 찾아오는 고객들의 반응은 굉장히 좋았다. 특히 벽면에 진열된 컬러칩 인테리어는 고객들의 색 사용에 대한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해 주었다. 깔끔한 상담공간도 마련되어 있어 상담을 진행하는 김기득 대표도 상담을 받는 고객도 서로 편안한 분위기에서 대화할 수 있다고 한다.

김기득 대표는 "오픈한 지 2주 됐어요. 시적이 나쁘지 않아요.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지만 혁신적인 인테리어로 페인트 대리점의 새로운 트렌드를 이끌고 있는 삼화페인트스토어 첫 신규 매장이라는 자부심으로 열심히 해 나갈 것입니다"라고 힘찬 포부를 밝혔다. S



삼화페인트스토어는  
당신이다.

## S Focus

삼화를 만나다  
취재 박지영[마켓지원팀 사원]



### 삼화는 하나다! 삼화페인트 노동조합 체육대회

지난 10월 25일 신안산대학교 대운동장에서 제9회 삼화페인트 노동조합 체육대회가 열렸다. 갑작스런 가을 추위가 찾아와 찬 기운이 운동장을 메웠지만 삼화인들의 승부욕은 막을 수 없었다. 그 뜨거운 체육대회 현장 속으로 들어가보자.



"오늘 하루 모든 것을 잊고 서로간의 화합을 다지며 즐거운 체육대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체육대회는 총 8개조(1조 생산1팀-컬러디자인센터, 2조 생산2팀-생산관리팀-공장관리팀, 3조 생산3팀-안전관리본부, 4조 생산4팀-QA팀-자재팀, 5조 생산5팀-공주공장, 6조 TS센터-영업부, 7조 연구소, 8조 물류팀)로 나눠 팀을 구성했다. 경기는 축구, 족구, 6인7각, 단체줄넘기, 혼합 릴레이 등 총 5종목이 진행되었다.

예선을 거쳐 올라온 팀들이 맞붙는 결선은 그 무엇보다 치열했다. 2조와 4조의 축구 결선에서는 탄탄한 조직력과 발끝에서 나오는 강력한 슈팅이 더해져 모든 상대편 선수의 기선을 제압한 2조의 우승으로 돌아갔다. 족구의 경우 예선전부터 강팀으로 꼽혔던 8조와 4조가 붙었다. 초반부터 강한 슈트 경기장 안으로 정확하게 내리 쏘는 골 킥을 능력으로 8조가 최종 우승을 거뒀다.

그 무엇보다 팀의 단결력이 중요했던 6인7각 경기에서는 팀간 탁월한 호흡을 자랑했던 6조가 우승을 차지했다. 단체줄넘기 경기에서는 연습 때부터 팀 모두가 날렵한 점프를 보여주었던 8조가 1등을 했으며, 장애물 릴레이에서는 가장 빠른 발과 장애물에 걸리지 않고 빠져 나오는 날렵한 팀원으로 구성된 6조에게로 돌아갔다.

점전에 점전을 거치며 치른 모든 경기에서 8조인 물류팀이 종합우승을 차지해 우승기를 손에 거머쥐었으며, 그 뒤를 이어 생산2팀-생산관리팀-공장관리팀으로 이뤄진 2조가 준우승을 차지했다.

이날 체육대회에서는 경기 외에도 플라후프 돌리기, 요술풍선, 경품 추첨 등 다양한 이벤트 및 게임도 진행되어 삼화 직원뿐 아니라 가족들도 모두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S

## S Focus

삼화나눔이야기

글 김예슬[소셜마케팅팀 대리]



## 삼삼한 화가들의 첫번째 행보, 청소년 비행 예방 벽화로 당현천을 물들이다!

삼삼한 화가들의 첫 번째 행보가 시작되었다. 삼삼한 화가들은 삼화페인트의 공식 벽화봉사단으로 삼화페인트 직원들과 일반 소비자가 함께 페인트를 통해 어두운 거리를 밝게 물들이며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벽화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 첫 번째 행보는 서울 노원 경찰서와 함께 당현천 일대 청소년 비행 예방 벽화 그리기 프로젝트. 청소년들의 후미진 공간이었던 노원구 당현천 일대 고가 아래는 어둡고 구석진 지역 특성을 가지고 있어 각종 청소년 범죄가 일어나는 장소로 노원경찰서에서 노심초사하던 장소였다.

학교폭력 예방은 물론 범죄 예방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요즘, 환경적 디자인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는 셉테드 기법을 활용한 당현천 일대 벽화 그리기 현장에 많은 자원봉사자들의 따뜻한 손길이 함께 했다.

노원경찰서, 노원구청의 공동주체로 서울여대와 노원구 미술협회, 그리고 삼화페인트의 후원 아래 진행된 이번 행사는 전문 도장인 모임인 '페인트 클럽' 회원들의 재능 기부를 통해 벽화 밑바탕 작업이 완성되었고, 삼삼한 화가들을 포함해 행사에 참여한 봉사자들이 함께 청소년 비행 예방 벽화를 완성시키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당현천의 아름다운 자연을 배경으로 도시와 도시를 '큐브'라는 컨셉으로 표현한 이번 벽화는 미래 지향적이면서 창의적인 느낌의 '큐브시티'를 벽화에 담았다. 맛있게 어두웠던 고가 아래는 삼삼한 화가들과 함께 해주신 많은 자원봉사자들의 벽화 활동으로 깨끗하고 화사하게 변화되었다.

삼삼한 화가들의 봉사자들은 이러한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의 어두운 공간이 밝고 아름다운 공간으로 변화를 시키는 데 도움이 된 것 같아 보람을 느낀다며 가족, 친구들과 함께 뜻깊은 주말을 보냈다고 소감을 전했다.

앞으로도 지속될 삼화페인트와 삼삼한 화가들의 행복한 변화를 향한 아름다운 행보가 기대된다. S



## S Focus

삼화페인트 캠페인

글 박지영[마켓지원팀 사원]

## 컬러마스터가 되기 위한 첫걸음, 캐주얼 프라이데이!

마치 깎은 듯이 떨어지는 단정한 핏의 정장. 이것은 회사원에게 기본이자 예의이다. 한 때는 이 모습을 동경하던 시절도 있었지만 막상 이 옷을 입고 생활을 하려니 갑갑하다. 뭔가 획기적이고 창의적인 결과물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지만 목을 졸라오는 타이와 앉아 있기 힘든 스커트는 족쇄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세상이 변화듯 기업문화도 달라지고 있다. 자유로운 분위기와 창의적 사고를 강조하면서 회사마다 속속 '캐주얼 프라이데이(Casual Friday, 금요일 자유복장 출근)'를 도입하고 있다. 페인트 시장을 선도하는 삼화페인트도 매주 금요일 컬러매칭 마인드 함양 및 창의성, 다양성을 포용하는 기업문화를 창출하고자 트렌드에 동참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삼화엔피플에서는 캐주얼 프라이데이를 맞이하여 10월 한 달 동안 '베스트 드레서'를 뽑았다. 직원들은 철용성 같은 정장에서 벗어나 저마다의 개성을 표출한 캐주얼 비즈니스룩을 선보이며 팀 단체사진을 찍어 사내 홈페이지에 올렸다. 단체 사진을 올려준 팀은 무려 15팀! 이중 26.13%의 득표율을 얻은 구매사업부가 '베스트 드레서'로 선정되었다.

삼화페인트는 이번 캐주얼 프라이데이를 첫걸음으로 자율성, 창의력, 다양성을 깨울 수 있는 컬러마스터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S

“자유로운 나의 영혼을  
가두고 있는 갑갑한 옷이며,  
이제 그만 날 놓아라!”





## 충청북도 제천 청청한 호수와 하늘의 완벽한 데칼코마니



높은 하늘과 거대한 청풍호가 만나는 이곳은 언제나 푸르다. 특히 요즘처럼 늦가을의 울긋불긋한 색이 더해져 산세와 호반이 이루는 정취는 더욱 깊어진다. 아름답다는 말로도 다 표현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청풍명월의 고장 충청북도 제천이다.

SH S 4050-R90B



### 하늘과 물이 닮았다



제천 청풍호 여행은 남제천 IC를 나와 82번 도로를 타고 가는 것부터 시작된다. 금성면 쪽으로 달리는 청풍호반 길은 드라이브 명소답게 가는 곳마다 그림이다. 특히 이 길은 봄날의 벚꽃으로 유명하지만 절정에 이른 가을에 만나는 낙엽길 또한 예술이다. 제천여행의 백미를 즐기기 위해서 청풍호 유람선을 빼놓을 수 없다. 청풍 나루터로 가 대형 유람선에 올라 선다. 제법 차가워진 가을 바람에 유람선 안에 있는 자리로 자연스럽게 걸음이 가지만 충주호의 진면목을 보기 위해서는 옷깃 여미고 유람선 밖의 자리에 앉아야 한다. 유람선을 타고 청풍호의 푸른 물결을 따라 흘러 가다 보면 쪽빛 하늘이 수면을 비치고 고운 빛깔을 담아내는 금수산의 기암과 절경이 한 폭의 동양화 처럼 펼쳐져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청풍호반의 아름다운 풍경 속으로 빠져들게 된다.

금수산의 원래 이름은 백운산이었다. 하지만 조선 중기 단양군수를 지낸 퇴계 이황은 단풍이 곱게 물든 이 산의 모습을 보고 마치 '비단에 수를 놓은 것처럼 아름답다'고 감탄해 금수산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어느 곳으로 눈을 돌려도 곱지 않은 곳이 없는 청풍호의 경치를 감상하다 보면 장화나루에 다다르게 되고, 청풍호 최고의 절경으로 꼽히는 옥순봉과 구담봉이 파노라마처럼 다가온다. 청풍호의 속살이라고도 할 수 있으며 단양 8경에도 속하는 옥순봉, 구담봉을 가까이서 두 눈에 담는 것에 빠져 있다 보면 도시에서 묻어 온 마음 속 찌든 때까지 깨끗하게 씻기는 기분이다.



### 세월의 손 때 여전히 남아

청풍호 유람선에서 내려 청풍문화재단지로 발길을 옮긴다. 도보로 10분이면 닿을 정도로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다. 청풍문화재단지는 1978년부터 시작된 충주다목적댐의 건설로 청풍면을 중심으로 5개면 61개 마을이 수몰되어, 1983년부터 3년 간 이곳에 있던 옛 고을의 모습과 각종 문화재들을 재현한 곳이다. 단지 내에는 조선시대 청풍부의 동헌으로 부사가 집무했던 금병헌, 보물인 한벽루와 석조여래입상 등이 있는

데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시대를 품어왔던 남한강 상류의 화려한 문화를 살펴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팔영루, 고가, 유물전시관, 수물역사관, 한벽루, 응청각, 금병헌, 육각정, 망월루, 금남루, 청풍석조여래입상 등의 순으로 둘러보게 되는데, 단지 규모가 꽤 커 꼼꼼히 구경하다 보면 2시간 정도가 소요된다. 갈 길이 바빠 모든 곳을 둘러보기 힘든 여행자라면 다른 곳은 몰라도 망월루에는 꼭 올라가 보길 추천한다. 돌계단을 따라 망월루에 오르면 청풍호, 청풍대교, 청풍문화재단지가 한 눈에 들어오며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는 풍경을 그려내 청풍문화재단지 최고의 뷰포인트라는 소문이 거짓이 아님을 깨닫게 해준다.



### 낮은 산 하지만 천혜의 절경을 품다

청풍호 여행의 대미를 장식할 곳은 비봉산이다. 새가 알을 품고 있다가 먹이를 구하려고 비상하는 모습을 닮았다 하여 이름이 붙여진 비봉산은 해발 531m의 그리 높지 않은 산이다. 한라산, 지리산, 설악산 등 기본 1,700m가 넘는 산들에 비하면 그저 키 작은 꼬마 같은 산이지만 높아야만 빼어난 전망과 풍광을 보여준다는 편견을 한 순간에 사라지게 하는 산이 바로 비봉산이다.

산 아래에서 정상까지는 1시간이면 충분하다. 걸어 올라가는 것이 버겁다면 모노레일을 이용하는 것도 좋다. 숲 사이를 거침없이 달려 20분이면 정상까지 데려다 주니 참 편하다. 정상까지 50~60도 되는 경사를 두 번 정도 거치는데 그때마다 느껴지는 스릴도 재미를 더해준다.

정상에 서면 그림으로 담으려 해도 따라 할 수조차 없을 것 같은 경관이 눈 앞에 펼쳐진다. 금수산과 옥순봉이 병풍처럼 자리하고 있고, 그 사이로 청풍호와 남한강이 잔잔히 흐른다. 호수 쪽으로 난 발들은 평화롭기 그지없다. 청풍호의 수려한 바람이 불면 잠시 눈을 감고 바람을 느껴본다. 온 몸을 보듬어주며 지나가는 바람은 대도시 삶의 상처들도 함께 가져가 주는 듯 하다. 운이 좋으면 패러글라이딩도 구경할 수 있다. 거침없이 하늘을 나는 사람들과 탁 트인 파란 하늘을 장식한 알록달록한 패러글라이더들은 보는 사람마저 설레게 한다.

비봉산 등반까지 마친 후 청풍호를 떠나는 길에 마음은 넉넉해져 간다. 여정 동안 따라다닌 자연의 푸름이 마음 속에 들어와 녹록지 않은 세상살이에 대한 부담감과 노곤함은 말끔히 가져가고 희망으로 채워주었기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제천이 자연치유의 도시라 불리나 보다. S

### Travel Tip

제천에 가면 대표음식 '약채락'을 꼭 맛보고 오자. 제천에서 생산된 황기, 당귀, 뽕잎 등 16가지 농산물을 재료로 한 한방비빔밥이다. 아시아 슬로푸드 경연대회에서도 입상한 명품음식이다.



카툰 in 마켓  
글·그림 정현영

# 비정상회담 편



Theme로 말해요!  
글 코비즈



## 나의 기분이 담긴 바로 '그 영화'

기분이 울적할 때, 하늘을 날아갈 정도로 기분이 좋을 때, 추억에 빠지고 싶은 기분이 들 때, 나의 기분을 달래주는 영화가 한 편쯤은 있기 마련이다. 나만의 희로애락이 담긴 추억 속 그 영화를 모두와 함께 나누고 싶다.



### 어바웃타임

어바웃타임이라는 영화인데요. 시간 여행 하는 능력이 있는 주인공이 자신의 이득을 위해 시간여행을 하게 되는데, 주인공은 '시간 여행을 하면서 행복과 불행은 자신이 선택하는 것이다' 라고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지금의 시간이 행복인지 불행인지는 자신이 선택하는 것이고, 하루하루를 즐겁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_ 자보도료팀 함경용 님



### 마르셀의 여름

나의 어린 시절 추억 속으로 빠져들게 하는 영화 <마르셀의 여름>. 눈부신 태양, 시원한 바람, 싱그러운 풀잎. 주인공이 나를 담아있는 건지 영화에 빠져들어 내가 주인공이 되어버린 건지 모를 정도로 영화는 잔잔하면서도 흥미진진합니다. 한겨울, 추억에 대한 기억을 더 가지 있게 만들어주는 영화 <마르셀의 여름>을 삼화가족들에게 추천합니다. \_ 서울시 강동구 천호영 님



### 나우엔던

아마도 제가 12살쯤 되던 해였던 것 같습니다. 동생과 우연히 TV 채널을 돌리다 보게 된 영화 <나우엔던>. 남자를 못지 않은 네 소녀의 우정이 마음을 촉촉하게 해주었고, 소녀시절 엄청난 감동을 안겨줬습니다. 시간의 흐름 탓에 멀어진 어린 시절 친구들이 생각나는 요즘, 제 기분이 제일 많이 담긴 영화입니다. \_ 서울시 도봉구 이은혜 님



### 웬스

노래만 들어도 장면이 떠오르는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영화 <웬스>가 그런데요, 아일랜드 더블린을 배경으로 우연히 만난 여자와 남자가 함께 음악을 만들어 사랑에 빠지게 되는 과정을 그렸습니다. 노래는 영혼을 지유하는 힘이 있다고 하죠. 각박한 현실에 지친 삶에 여유를 주고 싶을 때 이 영화를 추천합니다. 어느새 가슴 가득 따뜻함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_ 서울시 노원구 나유나 님



### 남극의 웨프

한마디로 '먹고 먹고 먹고 잘 먹자'라는 영화입니다. 남극으로 파견된 남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보이는 건 하얗게 펼쳐진 눈밖에 없는, 남극에서 즐길 수 있는 놀거리라곤 먹는 것밖에 없어 어떻게 하면 잘 먹을까, 다르게 먹을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합니다. 평소 요리를 즐겨 하는 저에게 음식의 신세계를 보여주어 아직도 인상 깊습니다. \_ 경기도 고양시 이기훈 님

다음 호 주제는 <나를 행복하게 하는 기억 속 '그 선물'> 입니다. 나만의 행복했던 추억이 담긴 선물이야기를 해주세요.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께는 CJ상 품권 2만원 권을 보내드립니다. 삼화엔 피플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응모는 이쪽으로 = 삼화엔피플 공식 이메일주소 | speople@spi.co.kr

문화를 드립니다!

[삼화엔피플]에서  
**독자 여러분께  
문화를 선물해 드립니다**

회사생활의 활력소! 우리들의 즐거운 이야기를 담은 사보 <삼화엔피플>이 독자 여러분의 참여와 의견을 기다립니다. 삼화엔피플에 대한 소감, 제안 사항, 참여 신청, 퀴즈 정답을 보내주세요. 영화 관람은 물론 외식, 쇼핑 등이 가능한 **CJ상품권**을 마구마구 싸드립니다.

응모는 이쪽으로 ➡ 삼화엔피플 공식 이메일주소 | [speople@spi.co.kr](mailto:speople@spi.co.kr)  
보내실 때는 이름과 소속, 주소, 연락처를 꼭 써주세요~!



**독자 이야기가 담긴 빨간 우체통**

언제나 관심을 가져주시는 독자분들의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독자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앞으로 전진하는 삼화엔피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셀프페인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의 사연을 받아 소량의 친환경페인트를 상품으로 보내주는 코너가 있었으면 합니다. 친환경 페인트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도 증대시킬 수 있고 우리 브랜드 인지도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유기합성지원팀 허진욱 님

벽화봉사단 '삼삼한 화가들'의 창단을 축하합니다.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소중한 일을 하는 곳에 재능을 나누고, 그 재능을 빛내주는 삼화페인트까지. 우리의 마음을 가르는 벽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일이라서 아주 기대가 됩니다.  
서울시 구로구 이훈성 님

삼화페인트 자보도로팀에 대해 알 수 있어 좋았습니다. 삼화에는 어떤 팀들이 있는지 궁금했거든요. 자보도로팀이 이루고자 하는 바를 꼭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독자로서 응원 할게요!  
경기도 평택시 김지은 님

표지 분위기가 확 달라졌네요. 점점 발전되고 있는 느낌이 들어 장간호부터 독자인 제가 다 뿌듯합니다. 다음 호 표지가 벌써부터 기다려져요! 파이팅입니다!!^^  
서울시 등대문구 이지혜 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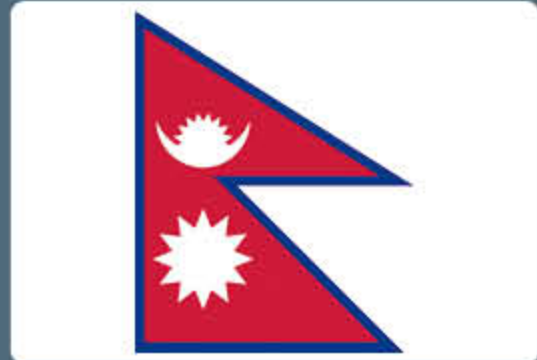
평소 여행을 좋아해 가족들과 시간이 나면 다니는데 우리 사보에는 연재를 안 해서 실망이 이만 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번 호부터 여행기사가 연재되니 앞으로 어떤 장소를 추천할지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색다른 읽을거리들을 기대할게요.  
충남 서산시 서성모 님

얼마전 삼화페인트 홈페이지에서 제 눈에 확 들어온 게 있었으니 바로 <삼화엔피플> 책 디자인에도 관심이 많아 구경하게 됐는데 디자인적인 면이 삼화페인트답게 다양하게 잘 표현되어있더군요. 내용도 무척 알차고 재미있어 시간 가는 줄 모른 채 탐독했습니다.  
서울시 중랑구 양미라 님

Samhwa & Quiz

Quiz 1.

아이엠그라운드 나라 이름 대기!  
사진에 보이는 국기는 어느 나라일까요?



힌트  
1. 인도와 중국 사이에 위치한 국가  
2. 세계 10대 최고봉 가운데 8개를 가진 국가

Quiz 2.

당신을 위한 두뇌 혁명 추리 퀴즈!



편의점 습격 사건의 진범을 찾아라!

이른 아침. 경찰서로 삼화편의점에 도난사건이 일어났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서둘러 현장으로 출동한 강형사는 바로 현장 조사에 들어갔다. 편의점의 과자나 음식들이 사방에 흐트러져있었다. 그리고 범인은 급했는지 길바닥에는 삼각김밥들이 굴러다녔고 삼각김밥 위에는 자전거가 지나간 자국이 있었다. 사건이 일어난 길가에는 편의점이 세 곳이나 있는데, 범인은 맨 끝에 위치한 삼화편의점을 범행장소로 선택했다. 강형사는 경찰서로 돌아와 용의자 3명을 불렀다.

**강형사 : 알리바이가 있다면 차례대로 이야기해보세요. 편의점 도난사건의 진범은 당신들 중에 있습니다.**

- 용의자1 : 아침에 보니 제 자전거 바퀴에 음식이 묻어 있었어요. 하지만 전 편의점에는 절대 가지 않았어요.
- 용의자2 : 아침에 집에서 TV를 봤어요. 그래서 삼화편의점 근처에 갈 수가 없었죠. 게다가 전 자전거도 없어요.
- 용의자3 : 제 자전거는 며칠 전에 망가졌고, 아침엔 가족들과 약속에 다녀왔어요.

당첨을 축하 드립니다.

축하! 축하! 축하드립니다. '문화를 드립니다'의 퀴즈코너 <Samhwa & Quiz>에 응모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편집장님과 레인보우기자단의 공정한 추첨을 통해 총 10분의 당첨자를 선정하였습니다.

지난 호 퀴즈정답 → Quiz 1 정답 : 웨일즈 / Quiz 2 정답 : 3번

지난 호 당첨자

생산관리팀 라벨실 방태혁 님 / 서울시 구로구 이훈성 님 / TS팀 윤창호 님 / 내화도로팀 이세운 님 / 응용기술팀 권정훈 님 / 해외영업팀 김한빈 님 / 부산시 부산진구 김성희 님 / 유기합성지원팀 이미진 님 / 전자재료팀 정혜선 님 / 생산관리팀 박원준 님

10 삼화엔피플 2015 캘린더 이벤트 공지

<삼화엔피플>에서 2015년 캘린더를 제작하여 독자분들께 선물합니다. vol. 14를 보시고 독자퀴즈 및 독자의견을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100분께 드립니다. 2015년을 함께 할 <삼화엔피플> 캘린더 많은 참여와 관심 바랍니다!

SAMHWA

삼화페인트



Be Classy

느끼는 것은 편안하게  
보이는 것은 세련되게  
그녀의 공간이 특별해진다  
프리미엄페인트 더 클래시

Premium Paints  
The Classy  
Premium Paints with TiO<sub>2</sub> & UV-light protection

